

# 법당 재건립 발원 매일 새벽정진

## 5773부대 장병들 현 호국용주사 비좁고 붐비 위험 커



◇육군 5773부대 불자들은 군법사가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당 재건립을 위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범 신도회장, 법원스님, 박종남 사단장과 부인 김금례 여사.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불자들이 군 법당 건립의 원력을 세우고 매일 새벽기도 정진에 임하고 있어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당 건립을 위한 불사금이 턱없이 모자라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육군 제5773부대 불자장병들은 부대 군법당인 호국용주사 건물이 붐비 위험이 있는데다가 공간이 비좁아 법회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14일 법당 재건립을 위해 현 법당을 철거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법회 때마다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법회를 열어야 했던 400여명의 불자 장병들은 이번 불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60평 규모의 법당과 25평 규모의 요사 등 총 85평 규모로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 3천여만원. 군

외과 김치 등을 판매해 이익금을 불사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매일 월급에서 10~30만원씩 보시하고 있다.

특히 박종남 사단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정진과 신중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일 50만원의 불사금을 회사하는 등 불교신도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1억5천여만원을 더 모금해야 하는 불교신도회는 불사금 마련을 위해 조

### 사단장 적극 후원...총 85평 6월 완공예정

### 신도회 사재보시·기금 마련 바자 20회

법사가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 신도회를 중심으로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불교신도회는 지난해 9월 불사금 마련을 위해 모연문을 배포해 모금에 나서서 한련 매일 새벽 5시 예불과 회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14일 법당 재건립을 위해 현 법당을 철거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계종 포교원과 각 종단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종남 사단장은 "군불자 장병들이 여법한 공간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적극 후원해달라"고 말했다. 017-672-8973(박운범 중령) 후원계좌:국민은행 833-01-0131-364(예금주 용주사)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 김태복장군 4차공판 열려

##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된 채 진행

군 법당 건립과 관련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한 4차 재판이 14일 국방부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중장)는 3차 재판에서 김태복 장군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영오 원사당시 불교회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서영오 원사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한편 김 장군측이 추가 요청한 증인 소상선 소장(당시 법당 재무장교)과 차원준 대

위(당시 여단장 전속부관)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 불교사회 네트워크

### 22, 23일 워크숍

불교NGO들의 연대를 추진할 불교사회네트워크 워크숍이 3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다.

경북련,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좋은벗들, JTS 등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시민운동가들이 불교 NGO단체들의 연대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중광스님이 미국 불교학자 랭카스터 교수와 자리를 함께 했을 때의 모습.

## 중광스님 타계

## 기인·예술인 슬한 화제 정대스님 등 빈소 찾아

일명 '걸레스님'으로 불리어 온 중광스님이 9일 타계했다. 승속(僧俗)을 넘나든 기인이자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한평생을 살다 간 스님은 빈소와 다비장에서도 슬한 화제를 낳은 채 한 점 재로 돌아갔다.

1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스님의 다비식에는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 태웅 신허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이에 앞서 서울 종남동 중앙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백담사 회주 오현스님, 구룡사 정우스님, 출판인 김중규씨, 가수 이남이씨, 탤런트 강부자씨 등 평소 스님과 친분을 나누었던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935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26세 때인 60년 통도사로 출가해 구하(九河)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77년에는 조계종 총회의원까지 지냈다. 그러나 잇단 기행과 파계로 79년 10월 승적을 박탈당한 뒤 승속을 오가며, 시·서·화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해 왔다. 국내 보다는 외국에

서 인정받은 스님의 그림은 미국 뉴욕의 록펠러 재단과 샌프란시스코의 중앙박물관, 대영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 김충렬교수 추모시

중광스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학계의 원로 김충렬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추모 한시를 보내왔다.

悼重光師(도 중광기인) 月落無痕潮漸返(월락무흔조기반) 索徵行怪聖嚴憚(색미행괴성엄란) 與君難交道頗離(여군난교도파리) 霞沒西天恠愆歎!(하물서천아원탄)

### 중광기인에 애도함

지는 달이 흔적을 남기던가 조수는 밀려와서 밀러가는 것/괴상한 소리 기이한 행동 성인은 이를 기탄없이/그대와 나 사귀는 하였으나 서로의 길이 달라 따락한 지 오래건만/서천의 노를 한 조각 흩어놓았다 하니 불쌍하고 안타까움, 탄식되어 입니다

민족화합을 염원하는 연등법회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렸다.

**연등법회 봉행**

동계추진본부(본부장 정연, 이하 민주북)는 5월 5일 신계사 터에서 연등법회와 연등 집담식을 봉행한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신계사에서 불자들은 통일기원발원문 낭독,

통일염원 등표 달기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기원한다. 한편 이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등 명소 관광과 평양 모란봉교에 단 공연 관람, 금강산 운현 관광도 함께 한다. (02720-0531, 강유신 기자)

# 지리산 살리기 종교연대 창립

## 100여 사찰·교회·성당 참여, 공동대표 도법스님

지리산 인근 지역의 4대 종교인들이 7일 함양성당에서 지리산 환경보존을 위한 지리산권 종교연대(공동대표 도법스님)를 창립했다.

지난해 지리산 문정댐 건설 반대투쟁 당시 지리산 환경보존을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져 왔던 4대 종교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종교연대를 결성한 것.

지난해 11월 창립 준비모임을 가졌던 지리산권 종교연대에는 경남 함양군, 산청, 거창,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등 지리산 인근 지역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에서 1백여 사찰, 교회, 성당이 참여했다. 특히 불교에서는 실상사, 겁의사, 벽송사, 금수암을 비롯 40개에 달하는 사찰이 동참해 지리산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지리산권 종교연대는 창립 모임에서 김용민 함양성당 신부를 상임대표로 추대하고 원불교 이선종 교무, 원웅스님, 행본스님, 수경스님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각종 훼손과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지리산을 환경중심으로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 결성된 지리산권 종교연대는 앞으로 지리산의 훼손을 막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하는 한편 종교 간 갈등해소와 화해 등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 대구경북 '불교복지망' 구축

### 40여 시설·단체·종단 법인 등 묶어

대구경북 지역에 '불교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지역복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구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회장 성웅, 이하 대경불사련)는 9일부터 이틀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불교수련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산재된 40여 곳의 불교사회복지 관련 개별단체, 종단 법인, 개별법인, 개인법인 및 산하 시설 등을 한데 묶는 '대구경북지역 불교복지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프로그램 호환, 인적·물적 교류 등 정보교류망을 마련한 대경불사련은 실무자 모임 정례화하고 불교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및 불교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경불사련은 단계적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중·고관리자급의 양성 △지역성과 현상에서 근거한 '풀뿌리 불교사회복지' 등을 한데 묶는 '대구경북지역 불교복지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사찰생태연구소 개원

### 10년간 108곳 사찰주변 생태계 조사

자연생태 조사·연구를 통해 환경운동을 펼칠 '사찰생태연구소'가 16일 개원했다.

두레생태기행은 16일 '사찰생태연구소'를 발족하고 소장에 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씨를 선임하는 한편, 박원규(총북대 산림학)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향후 10년 동안 전국 108개 사찰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조사사업을 전개하며, 올해에는 지리산 화엄사, 남원 실상사, 안성 칠장사 등 11개 사찰을 우선 선정해 3월말부터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사찰생태연구소는 전국 사찰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사찰환경 모니터도 실행하고, 지자체의 건설공사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사찰의 지나친 불사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감시활동도 벌인다.

강유신 기자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관음병풍**

**불탑다라니병풍**

**특징**

-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 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물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질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줄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타로그를 보실때마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분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병풍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맞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층씩 낚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는 사천왕 4분을 모신"

## 사천왕(四天王) 병풍

**특징**

-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람이 나날이 번성한다. 마땅히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특히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에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사오니 이번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오. 원력을 세우신 스님께서는 큰 도움을 주실 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주실 것입니다.
-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에 오고있습니다.

① 병풍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배본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용질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카타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짜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